

# 천년 茶의 유혹... '보성다향대축제' 막 오른다

### 오늘부터 5일간 서편제소리축제 등 7개 행사 동시 개최 제암산자연휴양림서 트래킹·짚라인·녹차 족욕 체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차(茶) 축제인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가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천년 차(茶)의 유혹, 보성의 프로포즈'라는 주제로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축제 주요 행사장인 한국차문화공원은 '봄재'에서부터 굽이굽이 펼쳐진 차밭을 따라 차를 타고 회전면 방면으로 내려가면 도착한다.

봄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인 계단식 차밭으로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한다.

올해는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된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비롯해 군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도 함께 열린다.

또 하루 간격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판소리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제20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에서 펼쳐지는 '제20회 일립산 철쭉 문화축제'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해양레저의 폭을 넓혀줄 '2024 한국오토미스트 전국오토대회' ▲초록빛 메타세쿼이아 길을 달리는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데일리 콘서트' ▲500대 이상의 드론을 활용한 '보성드론라이트쇼'를 개최한다.



보성군이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보성군 회천면 일대에 조성된 대규모 계단식 차밭 전경.

(보성군 제공)

먼저 다향아트밸리에 마련된 환영마당에서는 녹색의 옷, 소품 등을 착용한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드레스코드 그린, 녹차스텝쇼 소원지 쓰기 등 진행된다.

품평관과 남측 차밭에서는 천년 보성차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통차를 체험할 수 있는 찻따기, 차발스냅사진, 차발보물찾기 등이 마련됐다.

축제에 주무대인 잔디광장에서는 보성군과 하동군, 중국·일본 등의 차 문화관, 전통다례체험, 말차격투체험, 차로스팅, 블렌딩 차 체험 등 차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또 보성에 왔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산과 트래킹을 선호하면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추천한다. 4회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보행 약자도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고 5.8km 길이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킷마루 산책길인 '더눔길'이 자리한다.

또한 에코어드벤처 모험시설과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는 전용 짚라인, 243m 길이를 내려오는 골썰매 등으로 액티브하게 숲을 만끽할 수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 내 전남환경성질 환예방관리센터에서는 정신건강 선별검사·상담, 기초건강검진을 비롯해 원예치료, 제암산 숲 체험, 녹차 족욕, 정신건강 증진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울포솔밭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울포해수욕장센터 1층에는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과 특산품 판매장, 카페가 입점해 있으며 2층은 남녀목욕장, 3층은 야외 노천탕을 비롯한 스파 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3층 야외 노천탕은 온탕 외에도 족탕, 유아탕 등이 있어 탁 트인 울포해변을 바라보며 가족끼리 둘러앉아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며 힐링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 밖에도 보성에서는 청정 특산물에서 잡은 빨락지와 주꾸미, 새콤달콤 무쳐 먹는 시대회무침 등 싱싱한 해산물과 언제 먹어도 맛있는 녹차떡갈비, 녹차 먹인 돼지 '녹돈' 등 다양한 제철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성=임병원 기자

# 'MZ세대 공략'...광양 망덕포구 먹거리존 개소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대응 트렌드 소비공간 조성



광양시가 지난달 29일 진행된 망덕포구 먹거리존 '별 헤는 강'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별 헤는 강' 전경과 개소식.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MZ세대 관광객을 공략한 망덕포구먹거리존 '별 헤는 강'을 개소했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진행된 망덕길 185(망덕포구 일원)에서 광양 대표의 젊은 감성 음식과 문화가 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광양시의회의 의원, 관련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소식은 경과보고, 테이퍼 커팅식, 먹거리존 순회 등으로 진행됐다.

'망덕포구 먹거리존'은 대지면적 454㎡(137평), 건축면적 831㎡(27평), 연면적 157㎡(48평)에 지상 2층 규모로 광양시가 설치했으며,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한 임대운영으로 문을 열었다.

'별 헤는 강'은 매일 아이스크림, 광양 속 붕어빵, 불고기빵 등 광양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점부리와 수제청에이드, 커피류 등의 음료를 판매한다. 또 김부각, 매실 제품류 등 우수한 광양시 농·특산물도 판매된다.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광양시는 이번 망덕포구 먹거리존 조성을 통해 배알도 섬정원, 운동주 유고보존 가옥, 별 헤는 다리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섬진감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MZ세대 관광객 방문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인화 시장은 "MZ세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트렌드 소비공간 조성을 목표로 '망덕포구 먹거리존'을 조성했다"며 "선정된 임대 운영자 또한 청년 창업자로 지속적인 젊은 감성의 레시피 개발과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 고흥군, 3년 연속 물김 위판액 1천억 돌파

### 2024년산 총료 12만1천257t 기록

고흥군은 2일 "2024년산 물김 위판을 진행한 결과 총 12만1천257t, 2천162억 원의 위판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김은 반도체 고흥산 김' 생산을 위해 총 332어가 10만338ha에 10만3천508척을 시설, 지난해 11월 첫 위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물김 위판을 마무리했다.

고흥군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물김 위판액 1천억원을 돌파했으며, 이 성과를 친환경 양식기반 시설사업 지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어업

인의 적극 참여, 김생산에 적합한 해양 환경 조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영양염·강우량 부족에 따라 작황 부진과 황백화 현상 등으로 어려움이 겹치면서 물김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11월 중순 이후에는 김 생산량이 늘어 2024년산 물김 위판을 성황리에 종료할 수 있었다.

군은 깨끗하고 품질 좋은 김 생산과 김 양식 어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올해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인종 부표 공급, 김 종자 공급 지원 등 3종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 김재승 장흥군의원 "인구감소지역 교통 서비스 지원 촉구"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지침 개정 요구

장흥군의원 김재승(사진) 군의원이 제출한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2일 장흥군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치료 채택,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김재승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버스 및 택시 업체의 운송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지자체가 3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하고는 있지만 자주세원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투자사업 지침 때문에 현금성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기금이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지 못하고 관광 사업이나 건물 신축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를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교통 서비스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과 인구 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 여수 지역 상생 대토론회 '성료'

### 지자체 최초 사회공헌백서 발간

2023 여수지역사회 사회공헌백서 발표회 및 지역상생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 상생 대토론회'는 지난달 30일 여수 히든베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명 시장, 강재현 여수시 부의장, 조계원 국회의원 당선자, 여수시의원, 시민, 사회공헌활동가 및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와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는 2022년도 여수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담은 사회공헌백서 발표 후 지역 상생을 위해 후속으로 열린 시민 대토론회다.

정기명 시장은 축사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 백서를 발간한 부분과 두 번째 발표회 및 이를 통한 시민대토론회를 추진하



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존과 상생·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 여수지역사회 사회공헌 발표는 임재욱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진행했으며, 백서의 내용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여수=김진선 기자

## 곡성군, 전남 최초 '산불ICT 플랫폼' 구축

### AI 활용·24시간 조기 감지

곡성군이 전남 최초의 산불ICT 플랫폼을 구축했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산불ICT 플랫폼 구축사업은 산림 분야에 첨단 AI 기술을 접목한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곡성군이 최초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3억7천5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곡성군은 임야 면적 72% 이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 산림 면적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산불 무인 감시카

메라 시스템은 24시간 인력 대기가 어렵고, 야간 산불 감지가 취약해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며 전화 끝단 타임을 놓칠 수 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군은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산불의 조기 감지·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산불 연기를 탐지 시 최초 발화 지점의 위치를 SMS를 통해 담당자에게 전송, 즉각적인 대응과 초기 진압에 따른 대형 재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곡성=김영철 기자